해남군, 비지정 유적 통합 정비…역사문화권 재조명

현산면 일원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선정

상반기 중 시행계획 승인…신정유적·거칠마토성 발굴 조사도

해남군이 '해남의 뿌리'라 일컬어지는 현산면 읍호리 일원 비지정유적에 대한 통합정비를 본격화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현산면 읍호·일평리 유적 권역이 선정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현산면 읍호리 고인돌군·고다산성·일평리토성·일평리패총 등 현산면 일원의 비지정유적에 대한 통합 정비를 추진한다.

주변부 특화경관과 문화향유공간 조성 정비사업도 펼친다.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 자원을 정비·육성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읍호·일평리 권역은 해남읍으로 행정치소가 옮겨지기 전 시기인 선사시대부터 마한시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해남의 군사·행정의 중심지역으로 해남의 뿌리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유적마다 선사-근세문화가 골고루 융합되어 있으며 고대 국제해양 유통로였던 백포만과 땅끝 바다, 두륜산과 달마산 자락이 감싸도는 천혜의 자연유산이 하나로 연결된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올해 전반기 중 정비시행계획 승인 심의를 거친 후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2023년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공모 사업에도 2개 유적이 선정되어 시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송지면 신정유적과 북일면 거칠마토성은 백포만과 북일면 연안을 중심으로 마한~백제시기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으로, 특히 거칠마토성은 서남해 바닷길을 관장했던 마한~백제 수장세력의 왕성지로 추정되고 있어 해남 고대사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대 역사의 관심이 강 중심의 내륙문화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확장해 타 문물과 처음 만나게 되는 바다의 문화를 조명하기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시굴조사중인 북일면 용일리 거칠마토성 일대 원경. 〈해남군 제공〉

"유네스코 등재 갯벌 보호"…신안 섬 신규 축사 설치 0건

가축사육제한구역 100% 육박

신안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의 신규 축사 허가는 2021년 18건, 2022년 7건을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신규 축사 설치는 어려워졌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주변이 온통 갯벌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 면적은 11만㏊에 이른다.

일각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의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국립 세계유산보전원 건립, 신안 갯벌 국가해양정원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국고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장은 "앞으로도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전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붉게 물든 신안갯벌.

영암경찰서 옮기고 영암읍성 복원한다

영암군-영암경찰서 업무협약

영암군이 영암경찰서와 '영암경찰서 이전·신축 및 영암읍성 복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영암읍성은 조선시대(1429~1451년) 건축된 영암 핵심 문화유산 중 하나로 당시 고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행정·군사 시설물이다.

읍성 내에는 동헌을 포함 내아, 객사, 형옥, 작청, 향청, 사창, 훈련청 등 15개 시설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1986년에 들어선 영암경찰서는 일부 읍성터 위에 건축됐고 이를 안타까워하던 지역주민들은 경찰서를 이전하고 읍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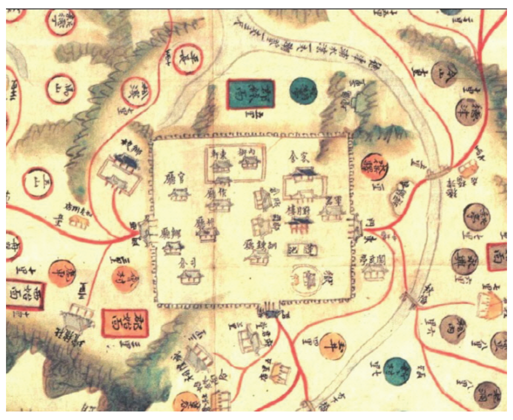
경찰서 부지는 오늘날 감옥인 '형옥'이 있던 곳으로 영암읍성 복원의 핵심 장소로 여겨진다.

경찰서 앞에 있던 읍성 남문터는 당시 성곽의 폭이 넓었고 현재 성터도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군은 전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영암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를 매입·조성한 다음 현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고 읍성 복원에 나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경찰서 이전·신축은 영암읍성 문화재 가치 회복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사안"이라면서 "영암읍성 복원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1872년 영암군지도 중 읍성지역 모습.

해남군 "공직부패, 익명전화로 신고하세요"

청렴 신고전화 '군민의 소리' 운영

해남군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전용 익명 전화(080-536-0188)를 운영한다.

익명 전화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철저하게 비공개인 전화로 공직부패, 부조리, 공익저해, 민원처리 지연 등 건전한 공직사회를 좀먹는 각종 병폐를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내용이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부합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층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첫 내부 역점사업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부서별 특화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또 명절선물 안주고안받기 캠페인, 민원 만족도 피드백 강화, 청렴대상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운영해 투명한 해남군을 만드는데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공익신고의 84%가 전화를 통한 신고라는 통계자료가 있는 만큼 전용회선이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외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우승희 영암군수가 영암읍 고령자복지주택을 찾아 영암시니어클럽 기찬밥상 뷔페식을 이용하고 있다.

55억 들여 개보수한 목포실내수영장 녹물에 곰팡이 득실

공조 시설 폐기해 결로현상

목포시 "4월 이전 보수 공사"

목포시가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개보수한 실내 수영장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이고 녹물이 떨어져 긴급 개선 조치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55억원을 들여 목포실내수영장〈사진〉을 공인규격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전면 개보수했다.

전면 개보수는 중계방송 카메라 역광 현상과 선수들의 눈부심 방지를 위해 다이빙장 창문 부분을 방수 석고보드로 시공해 외부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하지만 체전이 끝난 후 지난해 12월 일반인에게 개방한 수영장 바닥에 녹물이 떨어지고 벽면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내려앉았다.

녹물은 수영장 천장 철 구조물에서 떨어진 것으로 바닥 등이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태다. 수영장 결로현상은 실내 습기 제거 등을 하는 공조시설(냉난방)이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시는 공조시설이 낡아 사실상 폐기했지만, 개보수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는 결로현상과 녹물 등 구조물 오염과 관련 실내수영장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내수영장에 대한 현지 활동을 펼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오는 5월 예정된 전국소년(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대회 전까지 결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성급하게 수영장을 개방해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영장 문을 닫고 추경에 공조기 설치 예산을 반영해 4월 이전에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어르신들이 차린 집밥 '기찬밥상' 인기

영암읍 고령자복지주택서 급식

노인일자리 사업…주 5일 운영

영암시니어클럽이 영암읍 고령자복지주택에 '기찬밥상'을 열고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장을 선보였다.

영암군에 따르면 기찬밥상은 지난 29일 영암의 신선한 로컬푸드를 원료로 한 한식 뷔페로, 음식점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손맛으로 집밥 음식을 차렸다.

일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기찬밥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국비 1억4500만원을 들여 기존 급식실을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다.

주 5일 운영되며 고령자복지주택 거주자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도시락으로도 제공된다.

민선8기 영암군은 어르신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관행을 탈피해 생산적 복지를 강조해오고 있다. 어르신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는 어르신을 공경으로 대하는 문화를 정착하자는 것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기존의 공익형에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더해 추진하고 있다"며 "기찬밥상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의 현장, 영암형 생산적 복지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